

요양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이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

도영주¹, 강영실^{2*}

¹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²경상대학교 간호학과 / 경상대학교 건강과학연구원

Influ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Moral Sensitivity on Elderly Care Performance of Geriatric Hospital Nurses

Young-Joo Do¹, Young-Sil Kang^{2*}

¹Jin-ju Health College

²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 노인간호실천의 정도를 파악하고,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이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G도에 소재한 6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경력 3개월 이상인 간호사 153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을 이용하여 mean, t-test, ANOVA, Pearson's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2.87 ± 0.35 점, 도덕적 민감성은 7점 만점에 4.70 ± 0.47 점, 노인간호실천은 4점 만점에 3.51 ± 0.41 점이었다. 노인간호실천은 전문직 자아개념($r=.48, p<.001$), 도덕적 민감성($r=.31,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노인간호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문직 자아개념($\beta=.32, p=.001$), 도덕적 민감성($\beta=.18, p=.021$), 노인간호교육 이수경험($\beta=.17, p=.029$)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변수들은 노인간호실천을 31.6% 설명하였다($F=8.32, p<.001$).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며 더불어 요양병원 간호사에게 노인간호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moral sensitivity and elderly care performance nurses in geriatric hospitals, as well as to clarify factors that affect nurses' elderly care performance. Participants consisted of 153 nurses working in geriatric hospital in G Province were evaluated.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5 to October 15, 2018 and analyzed using the SPSS/WIN 23.0 program. The mean of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2.87 ± 0.35 out of 4, that of moral sensitivity was 4.70 ± 0.47 out of 7 and that of elderly care performance 3.51 ± 0.41 out of 4. Elderly care performance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ofessional self-concept ($r=.48, p<.001$) and moral sensitivity ($r=.31, p<.001$). Factors influencing elderly care performance were professional self-concept ($\beta=.32, p=.001$), moral sensitivity ($\beta=.18, p=.021$), educational experience of geriatric nursing ($\beta=.17, p=.029$), which explained 31.6% of elderly care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upporting systems should be arranged to provide various learning opportunities as a way to increase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with short career as well as intervention strategies may be necessary to make education of geriatric nursing obligatory.

Keywords : Professional Self-concept, Moral Sensitivity, Elderly Care Performance, Geriatric Nurse, Geriatric Hospital

*Corresponding Author : Young-sil Kang(Kyeongsang National Univ.)

Tel: +82-55-772-8252 email: kangys@gnu.ac.kr

Received April 9, 2019

Revised April 30, 2019

Accepted May 3, 2019

Published May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 출산으로 인하여 2016년에는 총인구 5,169만6,216명 대비 노년인구가 699만5,652명(13.5%)를 차지하였으며 그 비율이 점차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26년에는 20.8%가 예상되어 급격하게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될 전망이다[1].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증가하였고 요양을 받아야 하는 노인인구도 증가하면서 이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출범시켰으며 이와 함께 요양기관들도 증가하여 2009년 777개에서 2017년 1,529개로 그 수가 2배 정도로 증가하였다[2].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살펴보면 치매나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환자가 70% 이상이다[3]. 다른 연령층과 달리 현재의 건강문제 외에도 잠재적인 건강위험이 높은 노인환자들은 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고, 완치보다는 합병증 예방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인환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노인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노인간호인력의 간호제공이 중요하다[4]. 또한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질환과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대상자인 노인을 전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며 긍정적 업무태도로 간호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5].

간호실천은 실제 실무현장에서 개인적, 사회적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이며 환자의 복지를 증진시켜주는 돌봄행위를 말한다[6]. 따라서 노인간호실천이란 대상자인 노인의 생명, 건강,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문제를 파악하고, 노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이며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켜주는 돌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노인의 건강 및 안녕에 필요한 노인간호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각으로,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갖고 있는 느낌과 견해를 말한다[7]. Noh와 Sohng[8]은 임상간호사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들의 전문직 태도, 직업만족도, 적응력, 안녕수준, 간호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Kang[9]은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효과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여 간호생산성을 높이고 간호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요양병원

간호사가 더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지게 된다면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고 그 결과 그들이 실제 노인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간호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이 확립될 뿐만 아니라 역할갈등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노인간호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도덕적 민감성은 도덕적 문제를 인식하고 대상자의 취약한 상황을 상황적, 직관적으로 이해하며 환자를 위한 결정이 윤리적인 수 있도록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다[10]. 간호는 대상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편안함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는 윤리적인 실무영역으로 참간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는 먼저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11]. 더욱이 요양병원 간호사의 주간호대상인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대상으로 그들에게 간호활동을 시행하는 요양병원 간호사는 윤리적, 전문가적 책무로서 노인의 존엄성 존중에 특별한 의무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간호를 시행할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12]. Chang 등[13]의 연구결과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간호실천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을 파악하고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요양병원 간호사들을 위한 노인간호실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을 파악하고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요양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요양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 및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 3) 요양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도덕적 민감성, 노인간호실천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요양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도덕적 민감성 및 노인간호실천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요양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이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G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GIRB-A18-Y-0050).

자료수집은 G도에 소재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경력 3개월 이상인 간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9월 15일부터 10월까지였다. 요양병원 간호부를 통해 연구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 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를 표적 집단으로 하여 연구자가 먼저 간호부서장의 협조를 구한 후 설문지와 밀봉봉투를 배포하였으며 대상자가 직접 밀봉한 것을 연구자가 수거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 power program(3.1 version)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0, 예측변수 12개로 계산하였을 경우 최소 152명이 요구되었으며,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80부를 배포하여 165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12부를 제외한 15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전문직 자아개념

요양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Arthur[14]가 개발한 전문직 자아개념도구(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SCNI)를 Noh와 Sohng[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전문직 실무(16문항), 만족감(7문항), 의사소통(4문항)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그렇다' 4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Noh와 Sohng[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2.3.2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민감성의 측정은 Lutzen 등[10]의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MSQ)를 Han 등[15]이 번안하고 수정·보완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도덕적 민감성 설문지(K-MSQ)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환자 중심 간호 5문항, 전문적 책임 7문항, 갈등 5문항, 도덕적 의미 5문항, 선행 5문항의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절대로 동의 안함' 1점에서 '완전히 동의함' 7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n 등[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2.3.3 노인간호실천

노인간호실천을 측정하기 위하여 Choi[16]가 개발한 총 16개 문항의 노인간호실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노인을 간호하는데 있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간호를 실천하는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하지 않는다" 1점부터 "항상 하고 있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program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1)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2)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 및 노인간호실천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도덕적 민감성, 노인간호실천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 4)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 및 노인간호실천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6) 전문직 자아개념, 도덕적 민감성, 노인간호실천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h's alpha를 구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40~49세'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41.8세였다. 결혼상태는 '기혼' 125명(81.7%), '미혼' 28명(18.3%)이었으며, 종교는 79명(51.6%)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3년제 졸업' 71.9%, '4년제 졸업' 24.2%, '대학원졸업' 3.9%였다. 총 임상결역은 '10~15년 미만'이 26.1%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12.4년이었고, 요양병원 근무경력은 '3년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4.96년이였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75.8%, '책임간호사 이상'이 24.2%였다.

노인간호교육 이수 여부는 '있다'가 120명(78.4%), '없다'가 33명(21.6%), 도덕/윤리교육 이수 여부는 '있다'가

104명(68%), '없다'가 49명(32.0%)였다. 윤리적 딜레마 경험 여부는 '있다' 85.0%, '없다' 15.0%로 나타났다 [Table 1].

3.2 전문직 자아개념, 도덕적 민감성, 노인간호실천 정도

연구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도덕적 민감성, 노인간호실천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2.87 ± 0.35 점이였다. 하위영역으로는 전문직실무 영역이 2.91 ± 0.39 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 영역은 2.90 ± 0.40 점, 만족감이 2.81 ± 0.55 점으로 가장 낮았다.

도덕적 민감성 점수는 7점 만점에 4.70 ± 0.47 점이였다. 하위영역으로는 전문직 책임이 5.54 ± 0.67 점으로 가장 높았고 환자중심간호는 5.28 ± 0.69 점, 갈등이 4.90 ± 0.84 점, 도덕적의미가 4.12 ± 0.93 점, 선행이 3.67 ± 0.79 점으로 가장 낮았다.

노인간호실천 점수는 4점 만점에 3.51 ± 0.41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53)

Variabiles	Categories	N(%)	M±SD
Age(years)	<30	19(12.4)	41.82±9.98
	30~39	41(26.8)	
	40~49	53(34.6)	
	≥50	40(26.2)	
Married status	Married	125(81.7)	
	Unmarried	28(18.3)	
Religion	Yes	74(48.4)	
	No	79(51.6)	
Educational background	3yr college	110(71.9)	
	University	37(24.2)	
	University higher	6(3.9)	
total of nursing experience(years)	<5	23(15.1)	12.46±7.62
	≤5~<10	31(20.3)	
	≤10~<15	40(26.1)	
	≤15~<20	30(19.6)	
	≥20	29(18.9)	
Nursing experience in geriatric hospital (years)	<3	52(34.0)	4.96±4.04
	≤3~<5	28(18.3)	
	≤5~<10	48(31.4)	
	≥10	25(16.3)	
Current position	Staff nurse	116(75.8)	
	≥Charge nurse	37(24.2)	
Educational experience of geriatric nursing	Yes	120(78.4)	
	No	33(21.3)	
Experience of moral/ethical education	Yes	104(68.0)	
	No	49(32.0)	
Ethical dilemma experience	Yes	130(85.0)	
	No	23(15.0)	

†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able 2. The degre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Moral sensitivity, Elderly care performance (N=153)

Variables	M±SD	Min-Max	
professional self-concept	professional practice	2.91±0.39	1.75-4.00
	communication	2.90±0.40	1.80-4.00
	satisfaction	2.81±0.55	1.28-4.00
	total	2.87±0.35	
Moral sensitivity	professional responsibility	5.54±0.67	4.00-7.00
	patient oriented care	5.28±0.69	3.60-6.80
	conflict	4.90±0.84	2.20-6.80
	moral meaning	4.12±0.93	2.00-6.40
	benevolence	3.67±0.79	1.40-5.80
Elderly care performance	total	4.70±0.47	
		3.51±0.41	2.44-4.00

†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도덕적 민감성, 노인간호실천의 차이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총 임상경력, 요양병원 근무경력, 노인간호교육 이수 여부, 도덕/윤리교육 이수 여부였다. Scheffe 사후검증 결과 '40~49세'와 '50세 이상'이 '30세 미만'보다 전문직자아개념이 높았으며($F=5.82, p=.001$), 총 임

상경력에서는 '20년 이상'이 '5년 미만' 보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29, p=.001$).

또한, 요양병원 근무경력에서는 '5-10년 미만'이 '3년 미만' 보다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F=4.01, p=.009$), 노인간호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경우 (2.91 ± 0.34)가 이수경험이 없는 경우 (2.69 ± 0.32)보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았고($t=3.20, p=.002$), 도덕/윤리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경우(2.91 ± 0.34)가 경험이 없는 경우(2.77 ± 0.33)보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6, p=.019$).

대상자 특성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은 총 임상경력, 요양병원 근무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총 임상경력 '20년 이상'이 '5-10년미만' 보다 도덕적 민감성이 높았고($F=2.82, p=.026$),요양병원 근무경력에서는 '10년 이상'이 '3년 미만' 보다 도덕적 민감성이 높았다($F=3.37, p=.020$).

노인간호실천은 연령, 결혼상태, 총 임상경력, 직위, 노인간호교육 이수 여부, 도덕/윤리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50대이상'이 '30세미만'보다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았으며($F=3.48, p=.018$), 기혼이면서 임상경력에서는 '20년이상'이 '5년미만'보다 노인간호실천정도가 높았고($t=2.71, p=.007$), 직위는 책임간호사 이상이 일반간호사보다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6, p=.024$). 또한 노인간호 교육이수 경험 여부가 있는 경우가 이수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t=4.03, p<.001$), 도덕/윤리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도덕적/윤리적교육 이수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97, p=.003$) [Table 3].

3.4 노인간호실천, 전문직 자아개념 도덕적 민감성의 상관관계

Table 3. Difference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Moral sensitivity, Elderly car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categories	Professional self-concept			Moral sensitivity			Elderly care performanc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Age(years)	<30 ^a	2.61±0.34			4.73±0.48			3.36±0.36		
	30~39 ^b	2.81±0.32	5.82	a<c,d	4.63±0.47	0.51	b<e	3.47±0.37	3.48	a<d
	40~49 ^c	2.92±0.34	(.001)		4.74±0.51	(.670)		3.56±0.34	(.018)	
	≥50 ^d	2.96±0.32			4.74±0.42			3.64±0.29		
Marital status	Married	2.92±0.33	4.81		4.70±0.47	-0.58		3.57±0.32	2.71	
	Unmarried	2.59±0.30	(<.001)	4.76±0.47	(.557)	3.37±0.42	(.007)			
Religion	Yes	2.86±0.33	0.09	4.72±0.47	0.30	3.56±0.35	0.88			
	No	2.86±0.36	(.929)	4.70±0.47	(.763)	3.51±0.35	(.375)			
Educational background	3yr college	2.86±0.32		4.72±0.49		3.56±0.31				
	University	2.85±0.35	0.17	4.70±0.41	0.70	3.41±0.37	2.78			
	University higher	2.94±0.66	(.839)	4.48±0.36	(.495)	3.63±0.59	(.065)			
Total of nursing experience (years)	<5 ^a	2.67±0.54		4.77±0.52		3.39±0.36				
	≤5~<10 ^b	2.80±0.31		4.52±0.49		3.52±0.36				
	≤10~<15 ^c	2.88±0.31	5.29	4.64±0.35	2.82	3.45±0.38	4.40			
	≤15~<20 ^d	2.93±0.23	(.001)	4.75±0.48	(.026)	3.58±0.28	(.002)			
	≥20 ^e	3.06±0.31		4.80±0.49		3.73±0.25				
Nursing experience in geriatric hospital (years)	<3 ^a	2.73±0.33		4.63±0.49		3.46±0.34				
	≤3~<5 ^b	2.92±0.32	4.01	4.68±0.54	3.37	3.53±0.37	1.44			
	≤5~<10 ^c	2.93±0.30	(.009)	4.67±0.41	(.020)	3.58±0.34	(.232)			
	≥10 ^d	2.94±0.42		4.97±0.38		3.60±0.36				
Current position	Staff nurse	2.88±0.36	1.16	4.76±0.45	0.80	3.64±0.30	2.26			
	≥Charge nurse	2.78±0.24	(.246)	4.69±0.48	(.420)	3.50±0.36	(.024)			
Educational experience of geriatric nursing	Yes	2.91±0.34		4.72±0.48		3.59±0.31				
	No	2.69±0.32	3.20	4.66±0.45	0.71	3.32±0.40	4.03			
Experience of moral/ethical education	Yes	2.91±0.34	2.36	4.76±0.45	1.86	3.59±0.34	2.93			
	No	2.77±0.33	(.019)	4.61±0.51	(.064)	3.41±0.35	(.003)			
Ethical dilemma experience	Yes	2.88±0.34	1.36	4.71±0.47	0.29	3.55±0.34	1.48			
	No	2.77±0.39	(.175)	4.68±0.51	(.772)	3.43±0.38	(.140)			

†Independent t-test, scheffe

상관관계 분석결과 노인간호실천은 전문직 자아개념 ($r=.48, p<.001$), 도덕적 민감성($r=.31, p<.001$)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민감성과 전문직 자아개념 간에도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r=.37, p<.001$)[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Elderly care performanc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Moral sensitivity (N=153)

	Professional self-concept	Moral sensitivity	Elderly care performance
Professional self-concept	1		
Moral sensitivity	.37 ($<.001$)	1	
Elderly care performance	.48 ($<.001$)	.31 ($<.001$)	1

3.5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을 보이는 전문직 자아개념, 도덕적 민감성과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결혼상태, 총 임상경력, 직위, 노인간호교육 이수 여부, 도덕/윤리교육 이수 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VIF를 구한 결과 공차한계는 .46~.87이었으며, VIF는 1.20~2.13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분석결과 노인간호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문직 자아개념($\beta=.32, p<.001$)이었으며, 도덕적 민감성($\beta=.18, p=.021$), 노인간호교육 이수 여부($\beta=.17, p=.029$)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8.32, p<.001$), 설명력은 31.6%였다. 즉,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노인간호교육을 받을수록 노인간호실천이 높다고 할 수 있다 [Table 5].

Table 5. Factors Affecting Elderly care performance

Variables	B	β	t	p
Educational experience of geriatric nursing	.14	.17	2.20	.026
Professional self-concept	.32	.32	3.81	$<.001$
Moral sensitivity	.17	.18	2.34	.021
R^2	.31			
F(p)	8.32($<.001$)			
Durbin-Watson=1.51, Tolerance=.46~.87, VIF=1.20~2.13				

4. 논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 및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확인하여 이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요양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간호실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문직 자아개념($\beta=.32$), 도덕적 민감성($\beta=.18$), 노인간호교육 이수경험($\beta=.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1.6% 였다. 즉 전문직 자아개념은 요양병원 간호사가 노인에게 간호실천을 행할 때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임을 알 수 있으며, 도덕적 민감성과 노인간호교육 이수 여부도 노인간호실천을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 정도는 3.51점으로같은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ang 등[13]의 연구에서의 노인간호실천 평균점수는 3.78점,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ang 등[17]의 연구에서는 3.21점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환자가 노인환자이며 가족을 대신한 돌봄제공자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호사가 더 적극적으로 노인간호실천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본 연구 결과 노인간호실천 문항 중 대상자들이 가장 실천을 많이 하고 있는 문항은 "노인과 의사소통 시 분명하고 쉬운 말로 천천히 한다"였고 "노인에게는 손을 잡아주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여 지지해 준다" 와 "노인의 주위 환경을 정돈해 주어 안전관리에 도움을 준다"도 높은 실천율을 보인 문항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실천 문항은 "활동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일상생활 동작유지를 위한 재활간호를 시행한다"와 더불어 "노인의 건강교육 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준다"가 실천 정도가 낮은 문항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사들이 노인환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통한 지지나 의사소통 등에는 높은 실천을 보였지만 새로운 교육내용을 제공해주거나 무의식 환자 간호는 비교적 잘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13,17,18].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살펴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총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책임간호사 이상의 직위를 가지고 노인간호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대상자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인간호실천을 연구한 다른 선행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13,17-19].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간호사 중 직위가 높고 경력이 많

은 간호사들의 연륜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경험으로 인하여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아지므로 임상경력이 적은 일반간호사들에게도 노인간호실천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간호실천의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대상자들의 전문직 자아개념 점수는 평균점점 2.87점으로 중간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동일한 도구를 이용해 요양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측정한 Park[20]의 연구에서는 2.78점, 전문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연구한 Goh[21]의 연구에서는 2.76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ngel 등[22]이 개발한 NSCI(Nurses's Self-concept Instrument)를 활용한 Ryu등[23]의 연구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6.02점으로 4점 평균점점으로 환산 시 3.01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 결혼여부, 총 임상경력이 공통적인 영향변수임을 알 수 있는데 Park[20]의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총 근무 경력이 20년 이상이며 기혼의 간호사가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았고, Goh[21]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35세 이상이며 기혼의 총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인 간호사가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연령, 결혼상태, 총 임상경력, 요양병원 근무경력, 노인간호교육 이수여부, 도덕/윤리교육 이수여부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평균연령이 높고 결혼을 하였으며 총 임상경력이 많은 간호사가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향후 간호사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오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전문직 실무 2.91점, 의사소통 2.90점, 만족감 2.81점 순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ang[9]의 연구에서도 전문직 실무 2.81점, 의사소통 2.70점, 만족감 2.54점으로 만족감 영역이 가장 낮았으며, 경남지역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Park[20]의 연구에서도 만족감 영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만족감 영역에서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노인환자라는 특성으로 가지 대상자에 대해 전문적인 간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스스로가 간호직에 대한 자부심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고 노인간호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함[20]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중에서도 만족감을 고취 시킬 수 있는 방법들

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높은 영향요인으로 규명된 대상자들의 도덕적 민감성 점수는 4.70점으로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ang등[13]의 연구에서는 5.10점, Kim과 Kang[24]의 연구에서는 4.82점으로 나타났으며 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Kim과 Ahn[25]의 연구에서는 5.13점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도덕적 민감성 정도는 4.67점~5.13점으로 급성기 병원 간호사들과 비교 해보면 다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13,24-25]. 요양병원 간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약한 노인들의 안정사고 예방 및 문제행동 관리 측면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등의 윤리적인 상황에 자주 접하게 되어 다른 임상분야 보다 도덕적 도전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된다.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높은 도덕적 민감성은 윤리적 문제들을 포함하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므로[11], 도덕적 민감성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덕적 민감성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총 임상 경력과 요양병원 근무경력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Kim 등[25]의 연구에서는 임상 경력이 많을수록 도덕/윤리교육 경험이 있고 간호전문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Chang 등[13]의 연구에서는 연령은 40대 이상이 임상경력은 많을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 정도가 더 높았다. 이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도덕적 민감성은 임상경력이 오래된 간호사들이 임상실무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상황에 더 많이 부딪히며 올바르게 직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민감성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도덕적 민감성의 하위영역 점수는 전문직 책임 5.54점, 환자 중심간호 5.28점, 갈등 4.90점, 도덕적의미 4.12점, 선행 3.67점으로 나타나 전문직 책임영역과 환자 중심영역은 점수가 높은 반면 도덕적 의미와 선행 영역은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대부분 전문직 책임영역과 환자중심간호 영역은 높은 점수를 도덕적 의미와 선행영역은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13, 24-25].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들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문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환자중심의 간호를 시행하려는 마음가짐은 있으나 환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도덕적 동기[15]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직되고 기계적인 업무 매뉴얼이나 조직문화보다는 간호사 스스로가 목적을 동기화 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에 관한 연구로써 실무적인 의의로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전인적인 간호가 필요한 노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이자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켜주는 돌봄행위인 노인간호실천이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에 의해 높아질 수 있음을 처음으로 규명함으로써 노인간호실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틀을 제공하였으며 학술적 의의로는 노인간호실천정도와 노인간호실천과 관련 있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노인간호실천을 분석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교육적 의의로는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노인관련 교육의 필수화와 신규간호사들의 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지속적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서 이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을 측정함에 있어 경남지역 요양병원 간호사를 편의표집한 점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간호실천 측정도구가 구체적인 내용이나 하위영역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노인간호실천정도를 측정하기에는 도구의 부족함이 있어 향후 노인간호실천을 정확히 측정할수 있는 구체적이며 명료한 하위영역을 포함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노인간호실천 도구 개발을 제안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 및 노인간호실천을 확인하여 이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요양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요양병원 간호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인간호의 질을 높이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대상 요양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나 도덕적 민감성은 보통이상 이었으며,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이 요양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직 자아개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만족감 영역 즉, 간호사라는 직업에의 만족감을 소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낮은 신규간호사를 중점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도덕적 민감성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선행

영역과 도덕적 의미 영역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자에서 간호를 시행함에 앞서 그 행위의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도덕적 의미나 선행의 의미도 같이 생각 해 볼 수 있도록 병원 측에서 전 직원의 윤리교육을 정착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인간호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노인간호 관련 보수교육을 요양병원이나 노인병원과 같이 주대상자가 노인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의무화하는 제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4[Internet],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1003&vw_cd=MT_ZTITLE&list_id=A41_2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
- [2]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6[Internet],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3&vw_cd=MT_ZTITLE&list_id=354_MT_DTITLE&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
- [3]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Internet], Press release. Results of Evaluation of Long-Term Care Hospitals, 2010: 2011 Sep 30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0&brdScnBltno=4&brdBltNo=8197>
- [4] Y. J. Lee, "Utilization of medical assistance patients in nursing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5, pp.366-375, 2017.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7.17.05.366>
- [5] H. S. Oh, H. S. Jeo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program: consist of knowledge about nursing care for elderly and elderly simulation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4, pp.1654-1664, 2012. DOI: <https://doi.org/10.5762/KAIS.2012.13.4.1654>
- [6] B. H. Kong, "Nursing practice and caring attitude from the aspect of virtue ethics", *Journal of the philosophical society*, vol. 34, No. 3, pp. 83-108, 2004.
- [7] Arthur, D.,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A critical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17, pp. 712-719, 1992. DOI: <http://dx.doi.org/10.1111/j.1365-2648.1992.tb0196>
- [8] C. H. Noh, K. Y. Sohng, "Survey on the Relationship Self-esteem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4, No. 1, pp. 61-71, 1997.
- [9] S. Y. Kang, "A Study on The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Working in The Geriatric Hospitals",

-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Assan, 2010.
- [10] K. Lützn, M. Evertzon, C. Nordin, "Moral sensitivity in psychiatric practice", *Nursing Ethics*, Vol. 4, No. 6, pp. 472-482, 1997.
DOI: <https://doi.org/10.1177/096973309700400604>
- [11] S. S. Han, Y. S. Kim, J. H. Park, S. H. Ahn, K. H. Meng, J. H. Kim, "A Study of the Moral Sensitivity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Medical Ethics Education*, Vol. 10, No. 2, pp. 117-124, 2007.
- [12] K. K. Kim, "The Nurse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n the Older Adult's Dignity in Nursing Hom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Administration*, Vol. 15, No. 1, pp. 81-90, 2009.
- [13] H. Y. Chang, J. E. Song, Y. S. Kim, M. A. You, "Moral Sensitivity,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s for Older People among Nurses in Long 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Vol. 13, No. 2, pp. 216-230, 2013.
- [14] Arthur, D., "Measurement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Developing a Measurement Instrument", *Nursing Education Today*, Vol. 15, pp. 328-335, 1995.
DOI: [https://doi.org/10.1016/S0260-6917\(95\)80004-2](https://doi.org/10.1016/S0260-6917(95)80004-2)
- [15] S. S. Han, Y. S. Kim, J. H. Park, S. H. Ahn, K. H. Meng, J. H. Kim, "A study of the moral sensitivity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10, No. 2, pp. 117-124, 2007.
- [16] H. J. Choi, "The research is nurse of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for old age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02.
- [17] M. R. Kang, K. S. Jeong,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of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7, pp. 127-137, 2018.
DOI : <https://10.5392/JKCA.2018.18.07.127>
- [18] Y. K. Kim, S. H. Kwon, "Effects of Empathy and Attitude in Caring for Elders by Nurses in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Long-term Care Hospitals ",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Society*, Vol. 19, No. 3, pp. 203-213, 2017.
- [19] Y. H. Kwon, H. Y. Lee, S. S. Hwang,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 of the nurses-towards the Elderly in Geriatric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1, pp. 5785-5791,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1.5785>
- [20] J. H. Park,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job satisfaction recognized by Nurses Working in Long-term Care Hospit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2018.
- [21] Y. M. Goh,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in Special Hospit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11.
- [22] Angel E, Craven R, Denson N, "The nurses' self-concept instrument(NSCI): a comparis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ent nurses' professional self-concepts from a large Australian university", *Nurse Educational Today*, Vol. 32, No. 6, pp. 636-640, 2012.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1.09.006>.
- [23] J. M. Ryu, M. S. Kim, "Influ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leadership on Elderly Care Performance of Geriatric Hospital Nurse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 41, No. 4, pp. 392-402, 2016.
DOI: <https://doi.org/10.21032/jhis.2016.41.4.392>
- [24] J. A. Kim, Y. S. Kang, "Moral Distress and Moral Sensitivity of Nurses Working in Long 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6, pp. 240-251, 2018.
DOI: <https://10.5762/KAIS.2018.19.6.240>
- [25] H. R. Kim, S. H. Ahn, "Moral Sensitivity and Moral Distress among Korean Hospital Nurses",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Vol. 13, No. 4, pp. 321-336, 2010.

도 영 주(Young-Joo Do)

[정회원]



- 2019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9년 3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외강강사

<관심분야>

노인간호, 간호윤리교육

강 영 실(Young-Sil Kang)

[정회원]



- 1981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00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1986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2018년 현재 : 경상대학교 건강과학 연구원

<관심분야>

노인간호, 지역사회간호, 건강증진